

# ‘스토킹 살인’ 경고음...광주·전남도 ‘위험수위’

## 112신고 매년 증가...잠정조치 신청 2배 이상 급증 교제폭력도 경중...“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시급”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17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112신고는 2022년 662건에서 2023년 730건, 2024년 751건, 2025년 9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4년 새 36% 넘게 늘어난 수치다.

임건 권수도 같은 기간 246건에서 3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은 2022년 132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제폭력도 심각하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982건에서 2025년 3317건으로 3년 만에 1300건 이상 늘었다. 입건 수 역시 같은 기간 423건에서 476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2022년 785건에서 2025년 1033건으로 급증했다. 입건 권수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잠정조치 역시 265건에서 555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803건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1700명 수 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이 되자 209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전 연인인 자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30회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성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50대 대학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새벽

시간대 800차례 넘는 전화를 걸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상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주저저와 일상 공간까지 감속이 파고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경찰청이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63%를 기록,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청은 매년 폭증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27일 조직개편을 실시해 전담경찰관을 두 배(12명)로 늘렸다. 다만 전남청은 2023년 이후 한 명 늘어난 23명을 유지하고 있다.

접근금지나 유죄판결 등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한편,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에는 모니터

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된다.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1명이 맡는 사건은 100건에 육박하고, 잠정조치 이후 관리체계 역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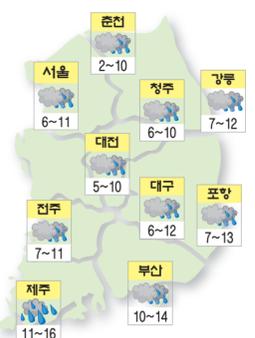
광주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반복되는 만큼, 엄격한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 조치와 전자감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고 있다”며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6:40	달림	06:04
맑음	18:42	달림	17:56



광주	7~13
목포	8~11
여수	9~12
순천	7~12
구례	6~14
광주	7~12
신도	9~13
흑산도	6~10
진남	7~12
진도	8~12

목포	밀물(고)	01:31 / 14:03
	썰물(저)	06:58 / 19:25
여수	밀물(고)	09:01 / 21:08
	썰물(저)	02:31 / 15:01

##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HYPER 2.0’ 선포

### 학습 ‘시 지능형 생태계’ 도입

조선대학교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전략 ‘HYPER 2.0’을 선포하고, AI 기반 지능형 생태계를 교육과 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17일 조선대에 따르면 그동안 ‘HYPER 1.0’을 통해 공간 혁신과 유연화 사제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해왔다.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HYPER 2.0’은 학습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교육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에게 AI 라이선스를 배포하고,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체계화

한다.

예비 신입생은 AI·SW 기초 과목 이수 의무화되며, 재학생은 프로그래밍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수진은 AI를 강의 설계에 활용하고, Co-Tool 사업을 확대해 맞춤형 교수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정 부문에서는 AI 활용 사례를 공유해 업무 혁신을 확산시키고, 윤리·보안 가이드라인과 교내 전용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활용 환경을 구축한다.

최홍석 대학혁신사업지원단장은 “AI 대전환을 교육 현장에서 구현해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



**법무법인 인의로, 사랑의 배식 봉사** 17일 광주 북구 일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와 법률 봉사회 변호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인의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적십자봉사회 봉사단은 광주적십자봉사관 무료급식소를 찾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0인분의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기남 기자 bluesky@

## ‘인면수심’ 친모 폭행·금품 갈취한 30대 실형

### 법원, 징역 8년 선고

친모를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빼앗은 통장으로 현금까지 횡령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광주 광산구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친모 B씨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를 든 A씨는 피해자를 폭행

한 뒤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위협했다. 이후 통장 2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귀금속 패물 상자,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현금 20만원 등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위로 CCTV 전선을 절단하고 기기까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43분 광산구 한 농협 ATM에서 자신의 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하고, 다른 통장으로 30만원을 추가 이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봉선동 일부 초교 ‘과밀학급’...위장전입 의혹 제기

### 블로·조봉초 특정 학년 학생 쏠림...“정밀 점검 필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학년이 확인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 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공립 초 학생 6만7260명은 151개 학교, 3678개 학급에 배치됐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 학급 수와 평균 학생 수 모두 줄어 학급당 평균은 19.3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학년에 학생이 집중되며 교육부 권고 기준 문제를 넘는 사례가 나타났다. 봉선동 통학구역 내 불로초등학교 2학년과 조봉초등학교 3학년이 대표적이다.

이들 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안팎까지 증가해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같은 학년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격차가 커 특정 학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

임은 이 같은 집중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학군 배정을 노린 주소 이전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 남구청은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협업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밀학급 완화와 함께 부정 전입 차단을 위한 점검도 검토 중이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몇 년간 적발 건수가 거의 없었던 것은 단속이 미흡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과밀학급은 교육환경 악화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 ‘신활력’ 총장로4·5가 상권 살리기 박차

### 동구, 광주극장·인문학 점포 연계성 강화 임대로 인화 등 문화 관광·소비 거점 집중

광주 동구가 총장로 4~5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식음료(F&B) 중심의 로컬 플레이어 유치와 거점 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총장4·5가 신활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용역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식음료 중심의 로컬플레이어 유치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와 공동

부 환경 조성을 통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동구는 사업에 앞서 상권 유동 인구의 특성과 업종 현황을 분석해 광주극장, 인문학 점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로컬브랜드, 활동가와의 협업·입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상인회, 지자체 등이 임대로 인화에 동참하는 건물주

를 지속 발굴해 빈 점포 해소와 신규 상인 유입을 유도하고, 총장로 4~5가 일대를 문화 관광·소비의 중심축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F&B 입점 구역 인근에는 외부 파사드, 바닥 환경, 감성 연출 등 환경정비 및 기반을 조성한다.

동구는 앞서 지난해 총장로 4·5가의 공실 점포를 활용해 총장4·5가 신활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총장마을백화점’ 사업을 추진. 4개 점포의 신규 창업·입점을 지원하며 장기간 방치됐던 공실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동명동에서는 핸드메이드 상품 제작

등 취미생활에 필요한 ‘원데이 수업’을 제공하는 김지희 만지공작소 대표가 지난해 3월 총장로 5가에 만지공작소 2호점인 ‘벨라디’를 개소하기도 했다.

퍼스널 컬러·체형 진단과 쇼룸(Show Room)을 겸한 이곳에는 전시 공간이 부족한 청년작가, 초기 창업가가 작품을 진열해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동명동과 총장로 공방에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참여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양조사와 소믈리에가 운영하는 전통주 바인 ‘총장로 전통주 제1보급소’는 혼술부터 데이트까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곳은 기본 안주만 간단하게 제공되고, 별도의 안주는 없어 배달음식

을 주문하거나 직접 가져와 즐길 수 있어 MZ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기포차는 가벼워지는 시민들의 지갑만큼 저렴한 가격대와 추억을 자극하는 주류,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관광·문화 연계 전략도 강화한다.

실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3막 9~10회에서 주인공 공명이가 매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간느극장이 바로 광주극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극장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는 광주극장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총장골목여행’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광주극장과 인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한 총장로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역대 대마 밀반입·흡입 징역 7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판결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께 태국 파티아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방곡과 파티아 등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받은 대마 약 2.08kg을 국내로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계양구 내 주저지에서 대마 약 1.09k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입·소지한 대마는 약 3kg(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